

충북교육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학원 방역 소독지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관리 강화

도내 전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학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지역 학원 내 접촉으로 인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전체 학원 및 교습소에 대

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소독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3,112개원에 2회분 총 3억 9,963만 원을 지원하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문 소독업체에 의뢰해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방역물품(손소독제, 살균티슈) 총 3,112만 원, 2종도 같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및 지자체 주관으로 2,982개원을 방역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및 대장 작성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종사자

자가진단 실시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등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 및 교습소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말에 청주시지역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자 4,078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동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누구나 참여 가능. 5월 31일까지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 경기도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공동체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 포스터, 캘리그래피, 영상물 등 4개 부문이며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4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교육감상장과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김재우 기자

다. 우수 작품은 각종 청렴교육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로비 공간 등을 활용한 순회 전시회를 열어 교직원과 방문객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박상열 서기관은 “청렴은 교육의 기본 가치로서 모든 공직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으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도 청렴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자유학년 진로캠프 운영

꿈으랴! 미래랴! 2021 자유학년 진로캠프



충남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중학교 1학년 116교 509학급 1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년 진로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학생들에게 ▲로봇(로봇공학자) ▲바이오(생명공학자) ▲연결(사물인터넷 전문가) ▲안전(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놀이(문화 크리에이터) ▲건강(의료기기 개발 전문가) ▲의식주(스마트 도시 전문가) ▲디자인(캐릭터 디자이너) 등 9개 영역의 미래 유망 직업군 체험을 제공한다.

자유학년 진로캠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로탄력성을 함

양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갖춘 참학력 인재를 양성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캠프에서 제공하는 직업군 체험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위촉해 운영한다.

이상길 진로진학부장은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직업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진로캠프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대전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추진

적극행정으로 교육분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적극행정의 자발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교육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교육가족 중심', '보상 확대', '지원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교육가족 체감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 등 5대 추진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로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자 제안서 심사지원 ▲교육제중명 Unctact & 원(援: 돕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수립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등 4개를 선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 승



진가점 등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행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 배제 및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며,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직원 보호에도 힘을 예

정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과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며 “교육현장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가족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전남교육청, 현장에서 답을 찾다!

특수목적사업 가이드라인 현장 컨설팅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 여양고등학교에서 창의융합형 안전한 과학실 구축과 운영에 대해 학교 담당자 및 교육청 관계자, 도의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창의융합형 안전한 과학실 구축은 다양한 과학현상에 대한 실험활동과 실생활 문제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적 탐구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미래 교육·학습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사업 목적에 맞게 구축돼 학생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학교와 함께 논의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전라남도의

회 교육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이 참여해 “특수목적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방향 제시로 예산낭비 없이 아이들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등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및 목적에 맞는 방향성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인재교육과 고광진 과장은 “미래교육에서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개발의 공간, 그리고 온·오프라인 융합 공간으로 공유와 연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창의융합형 안전한 과학실 구축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도내 288개 학교에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 19개 학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성매 기자

세종시교육청, '캠퍼스 고등학교' 교육부 심사 승인

전국 최초! 고교학점제 완성형 고등학교 설립 기반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개최한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행복도시 6-3생활권 약 6만4천여㎡ 부지에

50학급,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2024년 3월 설립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의 교육혁신 대표 공약사업인 '캠퍼스 고등학교'는 인문·자연·예술의 중점과정을 통해 고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

고 교과과정을 고도화해 진로맞춤형 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하는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관내 일반고등학교 안에서는 교과특성화과정을 특화하고, 학교 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립단계부터 고교학점제에 적합

한 공간 구성 및 교과 특성화과정을 갖추고,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 연계의 거점역할을 하는 고등학교는 '캠퍼스 고등학교'가 전국 최초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 시점에 기존 학교가 미래의 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캠퍼스 고등학교'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사랑은 나이를 바꾼다

현산은 제 2시집 『사랑은 나이를 바꾼다』에서 오래전에 피고 진 사랑조차 다시 활짝 꽃 피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랑을 노래한 시는 많지만, 현산의 시가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쁜 일상에서 길어 올린 소탈한 시어로 젊음을 되돌릴 수 없어 상심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열정을 지피게 하기 때문이다.

저자 현산 /가금현 /가격: 15,000원

시집 구입

에스24/알라딘 / 인터넷 교보문고 / 인터파크 도서 / 도서11번가